

꽃의 천국... 한라산에 피는 꽃들과 유사한 번식



전문가 리포트

백두산 천지로 오르는 길 중 서파산림도로는 서파산문에서 천지까지 거리가 30km 조금 더 된다. 출발점인 서파산문은 천지를 기준으로 보면 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서북쪽으로 다소 북서면으로 치우쳐 있고, 여기에서 천지를 향해 출발하게 되면 남동방향으로 18km쯤에 왕지 환승장이 있다. 이곳에서 다시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면 금강대협곡 환승장을 통과하여 천지로 가게 되는 것이다.

왕지 환승장에서 동남쪽으로 2.5km쯤에 왕지 또는 고산화원이라 부르는 곳이 나온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낙엽활엽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파산문에서는 자작나무, 황철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간간히 거대하게 자란 침엽수들을 볼 수 있다. 만주잎갈나무가 그 중 가장 많다. 이 나무는 높이가 무려 40m에 달할 정도로 크게 자란다. 백두산 일대의 목재자원 중 으뜸이다. 압록강 뱀목의 대부분은 바로 이 나무다. 산을 오를수록 침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왕지 입구에 내리면 종비나무와 분비나무가 대부분이다. 간간히 만주잎갈나무도 보인다. 이러한 침엽수들이 사스래나무와 섞여 숲을 이룬다. 한라산 웅진각의 구상나무, 사스래나무군락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왕지 가는 길에 설치한 테크를 따라 조금 가면 그 중에서 단연 크게 자란 침엽수를 보게 되는데 종비나무다. 중국에선 홍피운삼(紅皮雲杉)이라 하는데 나무껍질이 붉은색이라는 뜻이다. 학명은 코리아에 나는 가문비나무라고 해서 피체아 코리아엔시스(Picea koraiensis)다. 나무들은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 어울려 살고 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고산화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꽃의 천국이다. 약 1.6km 구간이 온갖 꽃으로 덮여 있다. 구릿대는 거의 2m에 달했는데 한창 개화기다.

붓꽃, 자주꽃방망이, 큰깃분취, 고산미역취, 수리취, 애기원추리, 참취, 개구릿대, 큰영경취, 우산풀, 박쥐나물, 귀박쥐나물, 큰세발박쥐나물, 털박쥐나물, 생열귀나무, 눈빛스마, 동의나물, 쫄대스마, 솔나물, 백당나무, 냉초 등 수십여종을 볼 수 있었다. 그 중 상당수는 한라산에도 피는 꽃들이다.

평고비, 음양고비,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도



위 사진은 침엽수와 사스래나무 혼합림. 아래 사진은 왼쪽부터 붓꽃, 생열귀나무, 수리취, 털썩이, 왕지 전경. 모두 한라산에 자라는 꽃들과 공통종이다.

눈에 띈다. 이 고사리 종류들은 모두 식용하는데 그 중에서 평고비는 어린잎을 삶은 후 말린 것을 미채간(微菜乾)이라 하여 우리 동포는 물론 중국 동북지방 사람들도 아주 좋아한다.

중간 정도 갔을 때 우리는 거대하게 자란 분비나무를 만났다. 한라산 구상나무와 아주 가까운 혈연관계다. 나무나 흡사하여 한라산의 구상나무를 이 분비나무로 알았었던 때도 있었다. 높이는 30m는 족히 될 것 같다.

드디어 왕지 입구가 나타났다. 은방울꽃, 관중, 모깃대, 귀박쥐나물, 동의나물, 두루미꽃, 나도옥잠 같은 종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라산 구상나무숲과 거의 똑같은 상상이랄 수 있다.

왕지는 분화구의 동남쪽에서 진입한다. 50여m 가만 수면에 닿는다. 수면의 해발고는 1850m, 직경은 남북 40m, 동서 30m, 면적 1200㎡, 최대 수심 3.5m다. 수면 주위를 한

바퀴 돌 수 있게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둘레가 350m 정도다. 전체적으로 한라산 물장울이나 물영아리를 연상하게 한다.

길림성장백산보호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측은 고산화림, 남측은 초원이다. 약화란 사스래나무를 말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화구 내의 식생은 분비나무와 사스래나무 혼합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왕지는 해발고도 볼 때 백두산 최고봉이 2744m이므로 그 중턱쯤 된다. 그러므로 높이만으로 본다면 낙엽활엽수림이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서파산문에서 올라오면서 봤던 숲이 연장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이다. 북과 즉 북서면은 이 정도 해발고에선 초원을 볼 수 없다. 나무의 바다라 할 만큼 울울창창 그대로다.

왕지 분화구 밖은 고산초원이다. 사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등성이처럼 다소 도드라진 지형이다. 북쪽으로는 송강하의 발원지

가 있고, 남동쪽으로는 만강의 발원지인 금강대협곡이 있는데 이 두강은 무송에서 합류하여 길림을 거쳐 송화강으로 흘러든다. 이 고산초원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강의 발원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화구 내는 강한 바람과 햇빛을 막아 교목림이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서 외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지형적 요인으로 해발고에 비해서 아고산대가 일찍 시작하고 고산초원이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침엽수림이 형성된다 해도 매우 엉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라산 영실탐방로 초입 해발 1400m의 관목림과 초원, 다 올라서면 구상나무숲이 나타나고 다시 뒷세오름까지 초원이 시작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이 지점은 해발 1600m 정도 된다. 관음사 탐방로와 성판악 탐방로라면 아직 초원은 나타나지 않는 높이다.

왕지에서 동쪽으로 5km 정도 가면 금강대

협곡, 여기서 15km 정도 직진하면 압록강 발원지다. 이 구간은 울창한 숲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동쪽으로 가면 백두산의 정남향이 되는데 이곳은 대연지봉, 북수백산 등 고산연봉이 즐비하다. 이곳은 부석층이 두꺼운 데다 남향이어서 매우 건조하다.

왕지보다 훨씬 낮은 곳까지도 초원이거나 무식생대가 펼쳐진다. 눈처럼 반짝이는 하얀 부석지대가 끝도 없이 펼쳐진다. 한라산의 남사면 돈내코 탐방로가 해발 1500m부터 초원이 펼쳐지는 것과 흡사한 현상이다. 산 정상에 하얀 부석으로 되어 있어 백두산이라 했다가 다시 뒷세오름까지 초원이 시작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이 지점은 해발 1600m 정도 된다. 관음사 탐방로와 성판악 탐방로라면 아직 초원은 나타나지 않는 높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2019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 걷기대회

- **신청기간** 2019년 10월 7일부터 (선착순 2,000명, 참가비 입금 순)
- **참가신청** 접수처: (사)고상돈로기법사업회 (전화, 팩스, 이메일 접수)
TEL: (064) 721-8848 FAX: 070-7966-1020
E-mail: kosangdon@naver.com
- **참가비** 1인당 10,000원(원주상품교환권, 경품권, 전세버스 제공) ※ 제주신문문화발전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원주상품은 행사 참가자에 한해 걷기대회 중 개별 지급
- **입금계좌**: 농협 301-0111-4696-24, 예금주: (사)고상돈로기법사업회
- **집결장소** 시민복지타운광장 (정부종합청사 서쪽 공원) 08:30까지
개회식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행사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준비물: 도시락, 배낭, 식수, 방한복, 기타

일시: 2019. 11. 3(일) 오전 9:30 개회식, 10시 출발

장소: 한라산 고상돈로

▶ 개회식: 어승생수원지 삼거리
▶ 걷기코스: 어승생수원지 삼거리 ~ 1100교지 고상돈공원(8.848m 구간)

주최: (사)고상돈로기법사업회

협찬: BLACKYAK

고상돈로
에베레스트, 한국인 초등지인, '정상의 사나이' 고상돈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2010년 2월 명예도로로 지정됐다. 한라산 1100도로 중 제주시 어승생수원지 삼거리에서 서귀포시 제주국제대학 사거리까지 18km 구간이다.